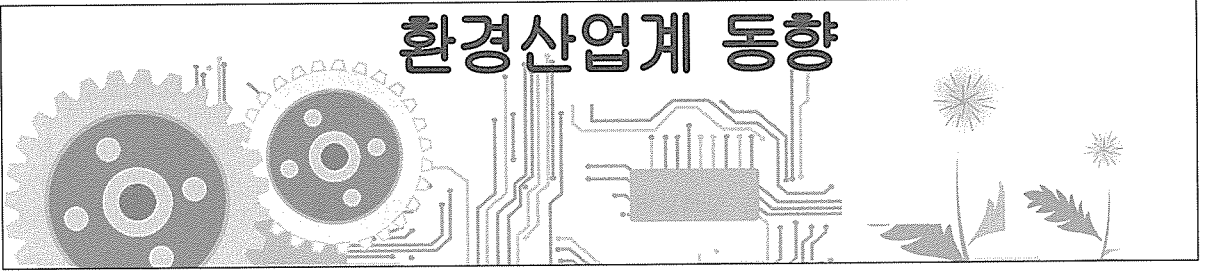


환경산업계 동향



유기농 원료사용 '비온드 피토가닉' 출시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이 세계 유기농 재배원료 인증기관이 인증한 천연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Bath & Body 케어 '비온드 피토가닉 라인'을 출시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비온드 피토가닉 라인'은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허브에서 추출한 유기농 성분과 유기농 오일을 사용한 제품으로 화학비료에 의한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 없어 피부에 순하고, 부드럽고 촉촉한 피부로 가꿔 준다.

또한 화학방부제 무첨가 제품으로 천연항균물질과 방부효과가 우수하며 보습성분만으로 방부기능을 갖는 '천연방부시스템'을 적용해 피부에 자극없이 영양과 보습을 전해준다. 가격은 페이스케어 1만9천원~4만5천원, 바디케어 1만3천원~2만5천원, 헤어케어 1만3천원.

LG생활건강 관계자는 "비온드 피토가닉 라인"은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는 알코올을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피토가닉 전 라인이 인공색소나 광, 동물류에서 유래되는 어떠한 원료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LOHAS 제품"이라고 말했다.

대한주택공사, 친환경단지 조성해 주거문화 '선도'

대한주택공사는 한국콘크리트학회로부터 올해의 우수 작품상으로 창의성과 작품성이 뛰어난 '서울 천연동 주공뜨란채'가 선정됐다.

주공 관계자는 "이는 금화시민아파트를 헐고 새로 지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급경사지임에도 불구하고 계단식 주동배치와 공중정원, 테라스 하우스 계획 등 우수한

설계와 빼어난 외관미를 갖췄다"며 "서울 도심에 한눈에 굽어볼 수 있는 조망권과 북악산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웰빙·친환경 명품단지로 그 작품성을 높이 평가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공은 지난해 기술상 수상에 이어 올해 작품상 수상으로 공사의 건설기술의 우수성은 물론 고품격의 작품성까지 인정받아 최고의 주택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받게 됐다.

주공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친환경단지 조성을 통해 국내 주거문화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차밍플, 액자형 누드 화분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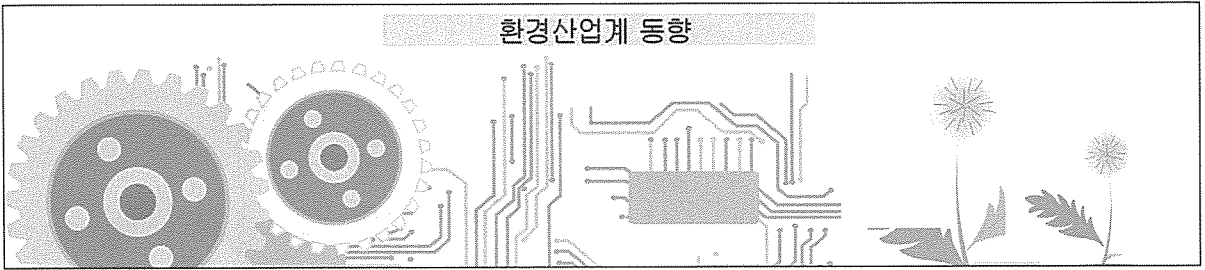
식물의 실내환경 적응을 연구·개발하는 차밍플(대표: 정완진)이 물 받침이 필요 없는 액자형 누드화분을 이용한 학습용 식물키우기 화분을 출시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 화분은 자연과 비슷한 조건을 조성한 투명한 화분 속에 씨앗과 토양이 들어 있는 제품이다. 물을 뿌려 주기만 하면 씨앗이 발아되는 과정과 뿌리의 성장과정 및 발육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물을 주는 시기와 양을 쉽게 알 수 있어 식물키우기에 실패를 줄이고 물 배출구멍을 안으로 숨겨 화분 밑이 깨끗하고 분갈이도 간편하다.

어린이들에게 식물의 성장과정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줘 관찰력과 집중력 및 자아성취,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화분 앞·뒤에는 사진(인화규격 3x5)을 부착할 수 있어 식물에 대한 친근감을 높여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차밍플 정완진 대표는 "자연학습용 뿐만 아니라 플로랄



폼, 특수젤 등 토양이 아닌 재질을 이용, 다양한 종류의 육묘를 액자형 누드화분도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세제 세탁기 기술 국제표준 된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최초로 개발한 ‘친환경 무세제 세탁 기술’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국제표준규격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지난달 개최된 ‘IEC 총회’에서 국내에서 개발된 ‘무세제 세탁기’ 안전에 대해 세계 23개국이 찬, 현재 국제표준규격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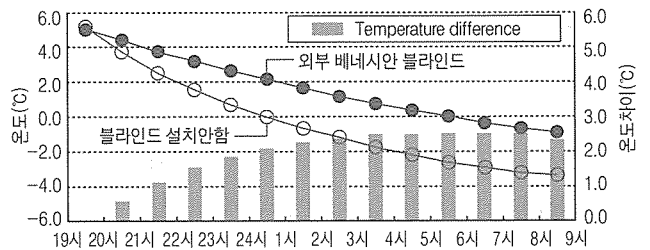
이번 IEC 60335-2-108 국제표준규격으로 채택예정인 신기술은 전기 분해장치를 부착하고 전해질재료인 탄산나트륨을 넣어 전기분해를 촉진, 세탁이 잘 되는 알칼리이온수를 만드는 기술이다. 지난 2002년에 중소기업인 경원엔터프라이즈(주)에서 자체 개발해 상용화한 신기술 적용제품이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주)대우일렉트로닉스가 상표명 마이더스 무세제 세탁기로 시판해 25만여대가 판매됐다.

‘무세제 세탁기’와 관련 기술이 내년 하반기에 IEC 국제표준규격으로 정식 채택되면 환경규제가 심화되고 있는 유럽 등에서 새로운 백색가전 품목으로서 성장고, 에어컨 및 기존 세탁기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수출 주도 품목으로 부상될 전망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에 국제기술위원회를 통과한 세척력이 우수한 친환경 세탁기술은 가전제품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주도하는 전기 마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동 블라인드, 에너지 절감 ‘효과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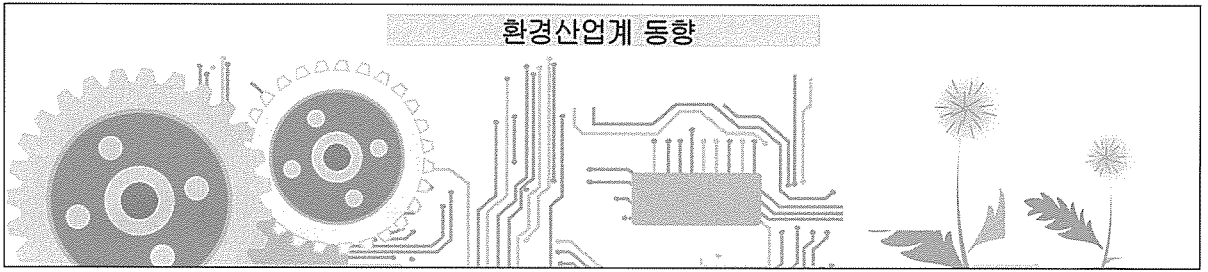


자동 블라인드가 건물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에 효과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건축환경계획 연구실은 ‘블라인드의 환경성능 평가와 자동 제어를 통한 쾌적 향상 및 에너지 절감 효과에 관한 연구 발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서울대학교내 엔지니어하우스에서 건축학과 여명석 교수와 김광우 교수, 그리고 전동 차량 시스템업체인 솜피 코리아(대표 조현학)의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실의 조사에 따르면 외부환경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 제어되는 자동 블라인드는 수동으로 조작되는 블라인드보다 건물의 냉난방 에너지 절감은 물론 업무 쾌적도 향상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에너지 소비가 높은 지난 6월~9월 사이의 에너지 소비량 조사 결과 자동식 블라인드는 블라인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약 9.8%, 수동 블라인드와 비교할 때도 약 2.9%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8월 한달 간 1천 평(3306㎡) 규모의 사무실 공간에 적용해 보면 에너지 비용은 ▲자동 블라인드를 사용할 경우 약 1천 74만 원 ▲수동 블라인드를 사용할 경우 1천 1백만 원 ▲블라인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천 1백 39만 원으로 산출된다.

자동 블라인드를 활용하는 것이 블라인드가 없는 경우에 비해 한달 간 약 65만원, 수동 블라인드를 평균적으로 조작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한달 간 약 26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조명 에너지 절감을 위한 빛 환경 성능 평가에서도 자동 블라인드가 수동 블라인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소 건물 작업면 기준조도인 500lux를 넘어 조명을 끌 수 있는 시간이 길며 해당 면적도 넓은 것으로 나타나, 조명 에너지 절감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블라인드 작동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수동 블라인드의 경우 95%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하루에 한번 이하로 작동한다고 응답했다.

외부환경에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한번 움직인 후 고정시킨 채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내부와 외부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블라인드 자동 제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피 코리아의 조현학 대표는 “자동 블라인드를 활용할 경우 에너지 비용 절감은 물론 직원의 쾌적도 향상을 통한 업무능률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노루페인트, 친환경제품효과 ‘톡톡’

노루페인트(대표 양정모)는 친환경 고수익 제품 개발로 인한 해외시장 진출로 올해 3분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8%나 증가, 630억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노루페인트에 따르면 지난 7월 재상장을 통해 ‘제2의 창업 전환점’을 마련, 올해 3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630억원을 기록해 견조한 외형성장을 이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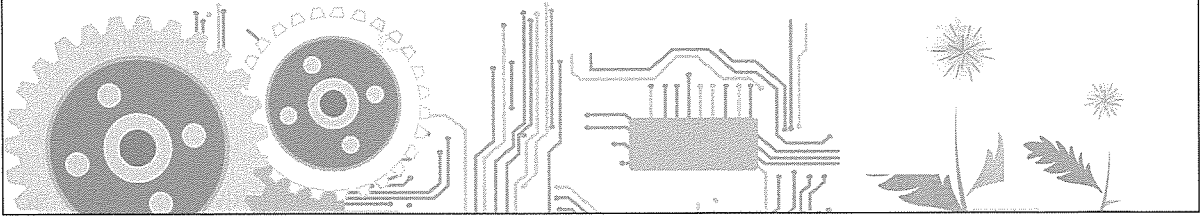
또한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무려 117% 늘어난 39억원을 달성함으로써 큰 폭의 실적개선을 기록했다.

노루페인트 관계자는 “그 동안 공들여온 친환경 고수익 제품의 개발 효과와 해외진출이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어 향후 노루페인트의 매출성장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고부가가치 신제품을 중심으로 한 내수시장 확대와 더불어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지속해 오는 2015년 아시아 5대 도로 메이커 진입을 위한 확실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루페인트는 경영효율성 증대 및 전문성 강화에 따른 신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페인트 업계 최초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했다.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로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및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통해 친환경 기업으로 비상 중으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세피앙, 환경호르몬 없는 ‘bibi 젓병’ 출시

유아용품 전문업체 (주)세피앙(대표 이상민)은 반복적인 열탕 소독에도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유출되지 않는



폴리아미드(Polyamide) 재질의 스위스 청정과학을 적용한 'bibi젓병'을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인 bibi 젓병은 소재에 비해 내구성이 뛰어나며 가볍고 투명해 젓병의 청결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젓꼭지의 회전 방향에 따라 수유량이 조절되도록 고안되어 있어 젓꼭지 하나로 원하는 수유속도를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유아 인체공학을 적용한 유선형 젓병 디자인은 수유시 아기들이 젓병을 좀 더 편하게 잡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첨단 에어벤트 방식의 배앓이 방지기능도 적용되어 있다. 이와 함께 파스텔톤의 부드러운 컬러색상을 적용, 아기들에게 시각적인 흥미와 정서적인 안정감을 유발시키도록 디자인했다.

이밖에 노리개 젓꼭지를 보관하는 스토리지 박스, 일회분씩 분유를 털어서 보관할 수 있는 외출용 디스펜서도 같이 선보인다.

영아 산통 및 유아 급사증후군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노리개 젓꼭지는 아기의 구강구조에 맞도록 3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공기 순환을 돕기 위해 아기의 입이 닿는 부위가 돌출형으로 설계되어 있다.

bibi수유용품은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한국 출시기념으로 지난 6일부터 5만원 이상 구매시 외출용 디스펜서를 증정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가격은 젓병(250ml) 1만9천원, 노리개 젓꼭지 9,500원, 디스펜서 1만4천원이다.

한편 bibi는 지난 1884년 스위스에서 설립된 헬스케어 및 의료용품 전문회사인 램프래치(Lamprecht)사의 유아수유용품 브랜드로 1982년에는 세계 최초로 실리콘 젓꼭지를 출시, 수유업계의 혁명을 일으킨바 있다. 현재 스위스는 물론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안전기준에 적합한 최상급 소재의 제품만을 생산하고 있다.

친환경 차량 '2007년형 토스카' 출시

지엠대우오토엔테크놀로지가 강화된 배출가스 허용 기준(KULEV : Korea Ultra-Law Emission Vehicle)을 충족시키며 배출가스 자가 진단 장치(OBD : On Board Diagnostic)를 장착한 저공해 친환경 자동차 '2007년형 토스카'를 출시했다.

OBD는 배출가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장치들을 모니터링 해 불완전 연소를 최소화하고 연비의 효율을 높이는 장치이다.

GM대우는 작년 8월 국내 최초로 배출가스 자가 진단 장치인 OBD를 적용한 라세티 출시에 이어 2007년형 토스카에도 배출가스 자가 진단 장치를 장착했다.

마케팅담당 릭 라벨(Rick LaBelle) 부사장은 "토스카는 국내 2.0리터 중형차 최초로 첨단 5단 자동변속기와 강력하면서 정숙한 직렬 6기통 엔진을 모두 갖춘 국내 유일의 중형 세단으로 꾸준한 고객의 사랑을 받아 오고 있다"면서 "이번 모델 연식 변경을 통해 고객 편의를 반영한 트림 운영과 강화된 편의사양으로 중형차시장에서 입지를 한층 더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7년형 토스카 가격(수동변속기 기준)은 ▲1.8 DOHC 1,565만원 ▲L6 2.0 1,688만원 ▲L6 2.0 SE 1,762만원. 자동변속기 차량은 ▲L6 2.0 SX 2,147만원 ▲L6 2.0 CDX 2,339만원 ▲L6 2.5 2,621만원이다.

2007년형 토스카 LPG 자가용 가격(자동변속기 기준)은 ▲L6 2.0 SE 1,764만원 ▲L6 2.0 SX 1,948만원. LPG 택시 가격(수동변속기 기준)은 ▲L6 2.0 1,166만원 ▲L6 2.0 Deluxe 1,311만원 ▲L6 2.0 Supreme 1,491만원이다. ◀